

제 3회 『애덤 스미스 입문』_에이먼 버틀러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3명

2019년 10월 12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

총 비용은 세 가지 넓은 생산 요소 사이에 나누어질 수 있다고 스미스는 주장한다. -중략- 그러므로 토지, 자본, 그리고 노동은 모두 생산에 기여하고, 지주, 고용주, 그리고 근로자 모두를 상호 의존적이게 한다. 그러나 그들의 상호 의존은 단순한 생산만을 넘어선다. 많은 생산은 교환에 쓸 예정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그 제품의 평가와 분배에도 결정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스미스는 우리를 점차, 국가의 산출물의 생산, 평가, 그리고 분배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이 일부가 되는 기능하는 경제 체제의 서로 관계가 있는 부분들로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깨달음으로 이끌고 있다.

=> 생산과 소비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제각기 각자의 시장에 연결 돼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요공급의 곡선도 공급은 기업이하고 수요는 소비자가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수요도 공급도 대부분 기업이 한다.

• 시장들이 어떻게 생산을 움직이는가

제품들이 실제로 교환되는 '시장 가격'은 그것들의 총 생산 비용보다 더 높거나 더 낮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제품 수요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시장에 내놓는지에, 달려 있다. -중략- 시장 가격은 결코 오랫동안 생산 비용 밑에 머무를 수 없다. 판매자들은 지속적인 손실을 겪기보다 물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아주 더 높을 수도 없다. 그것은 별 이윤이 있다고 경쟁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다. 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시장 가격이 다시 깎여져 매겨질 것이다. 그래서 산업의 목적은 정확하게 균형량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물론, 경쟁은 불완전할지 모른다. 규제가 시장 진입을 제한할지 모른다. 혹은 정보가 부족할지 모른다. 예를 들면, 더 값싼 생산 과정의 고안자는, 경쟁자들도 역시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수년간 이례적인 이윤을 얻을지 모른다. 그래서 '자연'가격과 시장 가격은 달라질지 모른다.

=>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원가와 가격은 차이가 존재하는지 이유에 관해 설명

• 임금은 경제 성장에 달려 있다

토지, 자본, 그리고 노동은 상호 의존적일지 모르지만, 근로자들과 고용주들 및 지주들과의 투쟁은 불평등한 투쟁이다. 비록 고용주들 사이의 담합은 '끊임없고 한결같다' 할지라도, 고용주들은 근로자들 사이의 담합을 금지하는 법률들의 통과를 위해 애쓴다고, 스미스는 말한다. 그러나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그릇된 경제임을 고용주들은 기억해야 한다. 더 나은 보수와 조건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더 높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근로자들의 최상의 친구들은 증가하는 국민 소득과 자본 증가인데, 그것들이 임금을 다투어 올리기 때문이라고, 그는 추측한다. 잉여 수입을 가지고 있는 지주는 더 많은 하인들을 고용할 것이다. -중략- 바꿔 말하면, 국부가 증가할 때 - 그리고 오직 그 때만 - 노동의 수요가 증가한다. '자유주의적 노동 보상'은 전적으로 경제 성장에 달려 있다.

=>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본이 흔해지거나
노동이 귀해져야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 시장 임금률

이론적으로 노동으로부터의 수익이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스미스는 과감하게 말한다. 만약 한 직업이 더 나은 보상을 받으면, 사람들은 다른 직업들로부터 떼를 지어 들어 올 것이고 시장은 곧 균형을 조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임금률들은 왜 실제로 상이한가?

그의 대답은 우리가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또한 비화폐적 노동 보상도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직업들은 힘들거나 싫다. 어떤 직업들은 계절적이다. 다른 것들은 그것들의 큰 대중 신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다. -중략- 이 모든 요소들은 특정 직업들에서 노동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시장경제가 잘 안착된 나라일수록 3D직업이 고임금을 받고,
편안하고 쉬운 일 일수록 낮은 임금과 좋은 사회적 시선을 받는다.
시장경제가 정상적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다.

• 임금과 정치

그러나 정치적 요소들도 역시 소득과 이윤에 영향을 미친다. 규정들은 사람들이 특정한 직업들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 -중략- 이러한 진입 장벽들은 장인 칼 장수, 베 짜는 사람 그리고 모자 제조인의 자격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의 소득을 떨어지지 않게 - 하지만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기들 자신의 노동의 '신성한 소유권'을 빼앗음으로써만이 그렇게 -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근로자들이 침체하는 직업에서 그들을 더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스미스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심지어 흥겹게 떠들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도, 별로 같이 만나지 않지만, 그 대화는 대중에 대한 음모나 가격을 올리려는 어떤 간계로 끝난다.'고 유명하게 단언한다. -중략-

스미스에게는, 기업들에 대해 유일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규율은 고객들을 잃을 두려움이다. 고객들이 주권적인 자유 시장은 - 너무나 자주 자기들의 공언된 의도와 정반대 결과를 낳는 - 아무리 많은 공식적 규칙들보다도 기업 행동을 통제할 더 확실한 방법이다.

=> 기업들을 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 내부의 노조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그들을 컨트롤 하게 두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 자본과 이윤

스미스는 스톡의 이윤 - 즉, 생산적인 기업들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익 - 이 매우 가변적이라고 논평한다. 그것은 상품 가격, 경쟁자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화들이 운반되고 있거나 저장되어 있을 때 그것들에 일어날 수 있는 '천 가지의 다른 사건들'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자율은 수익성의 대충의 척도가 된다. 만약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기꺼이 많이 지불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 빌린 자금을 생산에 사용할 때 그들이 상당한 이윤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 다른 모든 재화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자본도 가격을 갖는다. 현재가격과 미래가격, 그 차이를 우리는 이자율이라고 부른다.

• 토지와 지대

토지와 지대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는 그가 지주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가 고용주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들은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토지 소유권과 토지의 위치 및 비옥도만을 통해서 '독점 가격'을 누린다.

=> 지대추구는 시장을 교란 시키지만 토지도 거래되는 상품일 뿐이다.

• 자동적인 체제

요약하자면, 한 국가의 '연간 생산량'은 지대, 임금 그리고 이윤으로 분해되어, 지주들, 근로자들 그리고 고용주들이 불가피하게 상호 의존하게 된다. 그들은 재화들이 만들어 내어지고, 교환되고, 사용되고, 대체되는 것이 - 그리고 자원들이 자기들의 최상의 용도에 놓이는 것이 - 모두 아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막힘이 없는 흐름 체제의 부분들이다.

=> 시장경제는 그렇게 서로 잘 모르고 관심없는 이들을 매우 광범위하게 또 무엇보다 평화롭게 협동하게하는 체제다.